

보도시점 2026. 10. 28.(수) 11:00 배포 2026. 10. 27.(화)

한-앙골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협력 논의

- 전력망 확충 및 태양광·수력발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8일 오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이 주앙 밥띠스파 보르즈스(oão Baptista Borges) 앙골라* 에너지수자원부 장관과 만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앙골라는 인구 약 3,900만명으로 콩고강 및 쿠안자강 등 풍부한 하천과 높은 지형 낙차를 바탕으로 수력발전 잠재력이 매우 큼

앙골라는 풍부한 수력자원과 태양광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력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고 송배전망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앙골라는 그간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서 전력 기반시설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이번 면담에서는 이러한 앙골라의 전력 시설 수요와 우리나라의 전력망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확충에 관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술·운영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정책·제도와 관련한 정보 교류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수력발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댐·수력 발전 시설의 건설·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공유하고, 앙골라가 추진하는 수력발전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라며, “우리나라와 앙골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쌓고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앙골라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면담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박정욱 (044-201-6609)

1. 면담 개요

- ☐ (배경) 앙골라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방한(10.26~30) 계기 장관 면담 요청
- ☐ (일시/장소) '26. 10. 28(월) 11:00~12:00 / 롯데호텔(서울 중구소재)
- ☐ (면담대상) 앙골라 에너지수자원부 주앙 밥띠스따 보르즈스(João Baptista Borges) 장관

주앙 밥띠스따 보르즈스(João Baptista Borges) 앙골라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직책	Minister of Energy and Water
	학력	• Agostinho Neto University 전기공학 학사 • Universidade Nova de Lisboa 전기·컴퓨터공학 석사
	주요 경력	• ('08~'10) 에너지 차관 • ('10~'11) 에너지 국무장관 • ('11~현재)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기타	• 전력공사 EDEL 사장 등을 역임한 에너지 분야 전문 관료

2. 주요 의제

- ☐ 로비토 회랑 연계 청정에너지·전력 인프라 협력
(한국 기업의 앙골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
-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등